

해남군, 6년간 맞춤형 청년창업농 268명 육성

올 81명 선발 정착금 지원 등 5억 한도 농신보 우대보증

해남군이 해남 미래농업을 이끌어갈 청년 농업인 육성에 발 벗고 나섰다. 6년간 청년창업농 268명을 선발해 맞춤형 청년농업인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

14일 해남군에 따르면 올해 81명의 청년창업형 후계농을 선정, 청년들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선발된 청년 농업인에게에는 최대 3년 동안 월 90만~110만원의 영농정착금을 지급하고, 농지·시설을 매입·임차할 수 있는 5억원 한도 창업자금과 농신보 우대보

증, 농지임대 우선지원 등을 연계해 지원한다.

만 18세 이상부터 만 40세 미만까지의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 청년 농업인 및 예정자가 대상자로, 오는 4월말까지 2차 모집도 실시하고 있다.

지난 2018년부터 시작한 사업은 전남 최대 규모로, 올해 1차 모집까지 총 268명을 선발한 바 있다.

해남군은 청년농업인 단계별 맞춤형 사업지원 모델을 구축해 우수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고 지원에도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신규 청년농 유입 단계에서부터 기초교육과 컨설팅, 정착지원, 성장에 이르는 지원모델은 진입 유형과 단계별로 다양한 사업들이 지원된다.

이에따라 11개 사업에 41억6100만원을 투입해 안정적 영농정착을 위한 개별 농가 컨설팅 및 교육을 지원하고, 청년 4-H 우수과제 창업농 육성사업, 청년농업인 스타트업 초기창업 지원사업, 청년농업인 연구동아리 지원사업, 청년농업인 농지확보 지원사업 등 청년 초기창업과 영농기반 마련 등을 지원하고 있다.

경영실습 임대농장 6개소를 조성해 청년들에게 3년간 임대하는 사업은 영농기반과 재배기술이 부족한 초보 청년농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경영실습 임대농장은 스마트팜 시스템을 갖춘 300평 내외의 내재해형 비닐온실을 연간 20만원 내외의 금액으로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사업으로 삼산면 봉학

리와 평할리 일원에 조성되어 있다. 입주하면 토마토, 시설고추, 딸기 등 시설채소를 재배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도 실시한다.

해남군은 청년농업인 교류와 소통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청년들이 농업에 자부심을 갖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농촌 인구감소라는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에서 해남에 관심을 갖고 정착하는 청년농업인 수가 점차 증가하는 점은 고무적이다”며 “해남군의 미래인 청년농업인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남=전연수 기자**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강진군, 5월말까지

강진군은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전문 채취꾼 및 등산객 등에 의한 불법 임산물 굴·채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5월31일까지 계도 활동과 함께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 대상은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는 두릅, 취나물, 습나무, 고사리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를 비롯해 임산물 채취를 위한 수목 훼손 행위, 산림 내 취사 행위 등으로 산불방지 활동과 병행해 추진한다. 산림 내 위법 행위 적발 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는다. **강진=김윤복 기자**

청년 문화예술 패스 지원 해남군, 19세 청년 15만원

해남군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지원한다.

14일 해남군에 따르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청년 문화예술패스’는 19세(2005년생) 청년에 공연과 전시에 사용 가능한 문화예술패스 15만원을 지급한다.

인터파크와 예스24를 통해 11월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한 사이트에서 지원자격이 확인되면, 최초 발급시 10만원, 하반기에 5만원, 총 2회에 걸쳐 문화예술패스 포인트를 받게 된다.

지급된 포인트로는 뮤지컬, 연극, 클래식, 무용, 합창, 국악, 오페라 등의 공연과 각종 전시 관람이 가능하다.

해남=전연수 기자



(재)전남도청소년미래재단이 지난 13일 재단 광장에서 '전남 청소년, 우리 함께 날아 봄'을 주제로 전남도 대표 청소년 어울림마당 개막식을 개최했다. **전남도청소년미래재단 제공**

농기계임대사업소 토요일 운영 해남군, 농번기 대비

해남군이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촌일손 부족 해소와 저기 영농작업 추진을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소를 휴일에도 운영한다.

휴일 운영 사업소는 농기계임대사업소 본소(해남읍 용정리)이며 5월25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1시까지이다.

농업기술센터 농기계팀으로 전화(061-531-3835-6) 또는 방문하여 사전 예약하고 임대할 수 있다.

또한 농기계임대사업소는 농작업 사전 준비와 임대 계약시간 이후 농작업 종료로 인한 농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임대농기계 출고시간과 반납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임대농기계는 사용 예약일 전날 오후 4시 이후 출고 가능하고, 사용일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반납할 수 있다. **해남=전연수 기자**

축산 농가 퇴비 부숙도 무료검사 강진군, 연 2회 의무검사

강진군농업기술센터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산 농가라면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퇴비 부숙도 검사를 무료로 대행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란 환경오염 방지 및 지속가능한 농업기반 구축을 위해 가축분뇨를 농경지에 살포 전 부숙도를 의무적으로 검사하는 제도이다.

가축분뇨법에 따르면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대상 농가일 경우 배출시설 규모에 따라 신고대상은 연 1회, 허가대상은 연 2회 의무 검사 후 검사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부숙도 기준 위반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관리대상 미보관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므로 부숙도 검사를 잊지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퇴비 부숙도 무료 검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퇴비 더미를 잘 섞은 후 여러 곳의 시료를 채취한 뒤 시료 봉투에 500g을 담아 밀봉해 신청서와 함께 농업기술센터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실에 제출하면 되며, 결과는 일주일 이내에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관련 문의는 농업기술센터 가축분뇨 부숙도 분석실(061-430-3669)로 하면 된다. **강진=김윤복 기자**

전남도청소년미래재단, 도대표 청소년어울림마당

(재)전남도청소년미래재단은 지난 13일 재단 광장에서 ‘전남 청소년, 우리 함께 날아 봄’을 주제로 전남도 대표 청소년 어울림마당 개막식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청소년동아리 밴드, 태권무, K-POP 댄스, 창극, 버블매직쇼 등 공연과 체험·홍보 부스 30개 등을 운영해 드론, RC카, 로봇 프로그래밍, 뉴스포츠 등 다채로운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김원이 국회의원과 박문욱, 정철, 박원종 도의원을 비롯한 전남도, 목포시, 도교

육청, 시교육지원청 관계자가 참여했으며 전남도 청소년 참여기구인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과 꿈드림 청소년단 위촉장 수여, 주제 퍼포먼스 등을 진행했다.

지난해 8월 무안남악에서 목포 용해동(옛 목포경찰서)으로 이전한 재단은 청소년과 지역민을 위한 이전 후 첫 행사로 치르며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용해동 주민자치위원 등 주민을 초청, 지역사회와 상생·소통 간담회를 운영했다.

양미란 원장은 “청소년이 문화 활동 주

체자로 참여하며 동아리와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해 활성화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가 주최하고 전남도청소년미래재단이 주관하는 ‘2024년 전남도 대표 청소년 어울림마당’은 공연, 경연, 전시, 놀이 등 체험활동을 하는 청소년 문화 축제 장소로 연 8회 개최될 예정이다.

전남도청소년미래재단누리집 ‘공지사향’ 참고, 청소년활동진흥센터 행복성장팀(061-280-9071)으로 문의. **박간재 기자**

대국민 솜품 영상 공모전 전남개발공사

전남개발공사(사장 장충모)는 창립 20주년을 기념해 솜품 콘텐츠를 활용한 ‘대국민 솜품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기간은 5월14일까지다.

이번 공모전은 공사의 창립 20주년을 맞아 국민과 함께 소통하며 독창적이고 참신한 홍보 콘텐츠를 발굴을 위해 마련됐으며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주제는 △전남 미래 100년 도약 든든한 도민행복 실현 파트너 슬로건에 맞춘 영상 △창립 20주년 축하 영상 △공사에 바라는 점 등 선택할 수 있다. 자체 촬영, 단편영화, 애니메이션 등 장르 제한 없이 60초 이내 세로형으로 동영상 출품하면 된다.

공모작은 내·외부 심사를 거쳐 최종 6편이 선정되며 대상 150만원(1편), 우수상 100만원(2편), 장려상 50만원(3편)으로 선정해 6월 창립기념일 행사에서 시상할 계획이다.

전남개발공사 홈페이지나 SNS채널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창립 20주년을 맞아 국민들과 소통을 위한 채널로서, 참신한 아이디어가 반영된 다채로운 홍보 콘텐츠를 발굴하고자 기획했다”고 말했다. **박간재 기자**

진도군, 청소년 마음지킴이 이동버스 운영

성격유형검사 등

진도군이 최근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위해 ‘청소년 마음지킴이 이동버스’를 운영했다.

14일 진도군에 따르면 청소년 마음지킴이 이동버스는 진도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조도면 청소년들과 상담을 통한 소통을 위해 마련됐고 전남도청소년미래재단의 청소년마음지킴이버스와 연계해 실시했다.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생활을

위해 먼저 개인상담, 심리검사, 스트레스 검사, 청소년전화1388 홍보 등과 U&I 성격유형검사, 학교폭력 예방교육, 미니 꽃바구니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마음건강지킴이 상담 체험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심리검사를 통해 자신을 더 이해하고 현재 스트레스 상태를 알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의 호응도가 가장 높았다.

진도군 가족행복과 관계자는 “평소 상담서비스를 접하기 어려웠던 조도면 청

소년들의 마음건강 상태를 세심히 살필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카카오톡 채널과 전화 등 다양한 상담장구 구축으로 지역의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심리적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과 부모 등을 대상으로 개인상담, 가족상담, 전화상담, 심리검사 등을 진행하고 있고 9세~24세 청소년과 보호자는 누구라도 전화(1388-061-544-5122) 또는 방문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진도=백재현 기자**